

제주도 남부 해역의 어류상

오정규 · 최 운

군산대학교 해양생명과학부

서론

제주도 어류상에 대한 조사는 内田·矢部(1939)가 162종을 기록한 후 백(1977, 1984, 1994)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21목 124과 325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기록하였으며, 김과 이(1994)는 26과 43속 48종을 추가하여 제주도 연근해 어류 418종을 기록한 바 있다. 그 밖에 명(1997)은 서귀포 문섬 주변으로부터 4종의 미기록 종을 포함한 79종의 어류를 보고하는 등 1990년 이후 약 80여종의 미기록 어종이 제주도 연근해로부터 보고되었다.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송악산과 서귀포 해역에서 최근 3년동안 채집된 어류 목록을 제시하고, 2종의 미기록 어종에 대해 기재하였다.

재료 및 방법

1998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어시장과 어선 그리고 낚시에 의해 표본을 채집하였으며, 스킨스쿠버에 의해 사진을 촬영하였다. 수중촬영은 송악산과 가파도, 제주도 문섬 등 수심 5~30미터 범위에서 모두 27회 (1회 40분) 실시하였고, 동정이 가능한 표본에 한해서 어류 목록에 포함시켰다.

결과 및 요약

제주도 송악산과 가파도, 서귀포 해역에서 조사기간 동안 채집된 어류는 모두 12목 59과 94속 127종이었다. 이 가운데 농어 목이 82종으로 전체의 64.6%를 차지하였고, 고 수준에 있어서는 썸뱅이 목의 썸뱅이 과가 13종, 놀래기 과가 9종으로 가장 많았다. 이 가운데 복어목 참복과의 *Lagocephalus lagocephalus oceanicus* 와 매통이 과의 *Synodus hoshinonsis*는 한국미기록종이다.

참고문헌

김익수 · 이완옥. 1994. 제주도의 어류상. 전북대학교 한국어류상연구회. 51pp.